

베트남 빈 대학 역량강화 본격화

전북대, 국제협력선도대학 육성지원사업 재선정

2030년까지 27억 지원받아 빈 대학 수의학과 신설

전북대학교(총장 양오봉)가 국제협력 선도대학 육성지원사업에 재선정, 이에 따라 베트남 빈 대학의 역량 강화를 본격화한다고 6일 밝혔다.

이 사업은 국내 대학이 개발도상국 대학들의 교육과 연구 역량 강화를 지원하고 대학 간 교류를 통해 국제협력 체계를 구축하는 것이다.

이날 전북대에 따르면 2030년까지 27억여 원의 재정을 지원받아 빈 대학교 수의학과 신설 등 교육·연구역량 강화와 기술보급 사업 등을 수행한다. 구체적으로 수의학과 전공을 신설하고, 기존의 축산 전공의 교육 및 연구역량을 강화하는 것이다.

또한, 사회협력 체계를 구축해 베트남 중북부 지역을 대표하는 수의·축산학부 지역을 대표하는 수의·축산학부로 육성함으로써 전문 인력 양성과 기술개발을 통한 베트남 축산업 발전에 기여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올해 출범한 전북대 국제협력선도대학 베트남사업단(단장 김남수)은 지난 8월 31일 베트남 빈 대학에서 응우옌 후이 방(Nguyen Huy Bang) 총장을 비롯한 대학 관계자와, 베트남 응웨안성의 응우옌 반 데(Nguyen Van De) 인민위원회 부인민위원장 등 주요 인사들이 참석한 가운데 발대식을 가졌다.

이날 발대식에서 응웨안 지역 지도자들은 이 프로젝트가 지역 축산업 발전과 수의사 배출에 기여하고, 인·물적 지원의 질을 높여 품종 및 백신 개발, 질병 통제 역량 등을 크게 향상시킬 것으로 기대했다.

특히, 베트남 방송과 신문 등의 뉴스 매체에 대대적으로 보도되는 등 현지에서도 관심이 매우 컸다.

발대식에서 응우옌 반 데 부인민위원장은 "응웨안성이 속한 중북부 지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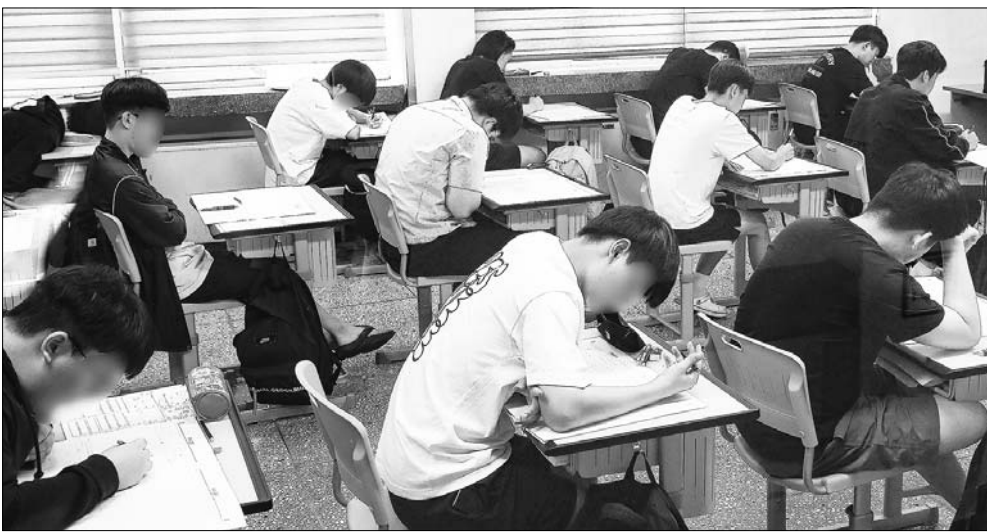


전북대학교가 국제협력선도대학 육성지원사업에 재선정, 이에 따라 베트남 빈 대학의 역량 강화를 본격화한다고 6일 밝혔다 (사진=전북대학교 제공)

및 베트남 전역의 각 성들과의 협력을 강화해 지역 가축·동물 산업 발전을 촉진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약속했다.

송철규 연구부총장은 "UN 대학평가 세계 100대 대학에 진입한 국내 최고 수준의 역량을 자랑하는 전북대 수의

대가 우수 교수진과 동물의료센터 연구 및 운영 노하우 등을 적극 활용하여 사업을 성공으로 이끌 것"이라며 "우수 연구역량 간의 인적교류와 수의·축산 기술 전수를 위한 대학 차원의 적극적인 지원을 하겠다"고 밝혔다. /정은성 기자



전국연합협력평가 치르는 도내 고교생들

2023년 전국연합협력평가가 열린 6일 전주 동암고등학교에서 학생들이 진지한 모습으로 시험을 치르고 있다.

올 학교비정규직 집단 임금교섭 돌입

교육부·17개 시도교육청-전국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 올해 전북교육청이 '대표'

전북도교육청(교육감 서거석)은 6일 오후 3시 2층 강당에서 노사 측 교섭위원 4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3년 집단(임금)교섭을 시작했다고 밝혔다.

6일 도교육청에 따르면 교육부와 17개 시도교육청은 노사관계 파트너인 전국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와 2017년 이후 계속해서 집단 임금교섭을 진행

해오고 있다. 올해는 전북교육청이 대표교육청을 맡았다. 이날 회의에서는 교섭 절차 합의서에 서명하고, 2023년 집단(임금)교섭의 개시를 공식화했다.

이에 따라 교육부 및 17개 시도교육청과 전국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는 앞으로 주 1회 실무교섭을 갖고, 집단

(임금)교섭 요구안에 대한 양측 입장을 조율해 나갈 예정이다.

이번 집단(임금)교섭의 대표인 서거석 교육감은 "합리적이고 공정한 진행 과정 속에서 노사 간 충분한 협의가 이뤄지면, 양측 모두 만족할 수 있는 방안이 도출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정은성 기자

고창교육지원청, 제2회 교육거버넌스위원회' 개최

고창교육지원청(교육장 유승오)은 6일 고창교육 발전을 위한 제2회 고창교육거버넌스위원회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는 유승오 교육장을 비롯한 교육거버넌스위원회 위원 및 사업담당자 11명이 참석해 △글로벌 역사문화탐방 연수 △2024년 도서관 교육프로그램 운영 방안 등을 논의했다.

특히, 글로벌 시대 주역이 될 미래인재 육성을 위해 추진하고 있는 글로벌 역사문화탐방 연수와 관련하여 프로그램 대상자 선정 및 세부 운영안에 대해 깊이 있는 의견을 나눴다.

유승오 교육장은 "교육거버넌스위원회는 교육정책의 현안을 민관이 협력해 해결 방안을 모색하는데 의미가 있다"면서 "앞으로도 지방자치단체, 지역사회와의 소통과 협력을 통해 다양한 의견을 고창 교육 정책에 담아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고창=김영식기자

도교육청 "학부모교육 신청하세요"

전주·남원시 각각 한 차례씩 진행... 아동 심리·성교육 주제

전북도교육청(교육감 서거석)은 전주와 남원에서 각각 한 차례씩 학부모교육을 진행한다.

먼저, 20일 오후 7시 도교육청 창조나래(별관) 시청각실에서 '내면이 건강한 아이로 키우는 양육 코칭'을 주제로 운영된다.

이날 김효원 서울아산병원 정신건강의학과 교수가 강사로 나서 내 아이의 속마음을 제대로 파악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 학부모들과 공유한다. 교육 내용으로는 △다양한 감정 표현법으로 알아보는 공감 솔루션 △혜로운 소통으로 현명한 부모의 건강한 양육 전략 △성장 눈높이에 맞춰라! 내 아이가 행복해질 수 있는 방법 등이 있다.

이어 23일에는 남원교육지원청 별관 2층 시청각실에서 '할성달성 우리아이 성교육' 강의를 진행한다. 상담학 박사이자 성교육 전문가인 자주스를 김민영 대표가 강사로 참여해 성교육의 중요성과 우리몸 비로 알



20일 진행되는 학부모 교육 포스터.

기, 제대로 알아야 할 성 지식 등 학부모들의 궁금증을 풀어줄 예정이다.

한편 교육 참여를 희망하는 학부모 또는 지역주민은 전북학부모지원센터(<https://www.jb.go.kr/parents>) 홈페이지에 접속해 신청하면 된다. /정은성 기자

도교육청, 9일 디지털 기반

융합형 독서토론 교사 연수

전북도교육청(교육감 서거석)은 오는 9일 창조나래 시청각실에서 도내 초·중·고·특수학교 교사 50명을 대상으로 디지털 기반 융합형 독서토론 교사 연수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이날 연수는 독서를 기반으로 디지털 시민성, 미디어 문해력, 디지털 공감력 등 교사들의 다양한 디지털 분야의 역량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6일 도교육청에 따르면 이번 연수는 지난 4월 학생 대상으로 운영했던 디지털 기반 독서토론 '눈길' 프로그램을 토대로 개발된 디지털 도구 활용 독서토론 프로그램 매뉴얼 및 실천 사례집을 바탕으로 이뤄질 예정이다.

특히 서울대학교사범대부설중학교 호민에 교사와 커뮤터로 합선미 부대표가 강사로 나서 '스비주얼 씽킹'으로 한 걸음 더 깊어지는 비경쟁 토론 △ALLO, 책app를 활용한 비경쟁 독서토론 △독서토론 수업 설계 등으로 강의가 펼쳐진다.

이서기 문예체건강과장은 "디지털 기반 융합형 독서토론 연수는 교사들의 전문성과 역량을 강화해 디지털 시대에 발맞춘 교육을 제공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한"이라며 "앞으로도 디지털 교육환경 변화에 대비하기 위한 다양한 교사 연수를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정은성 기자



전주대, 찾아가는

수시모집 입시상담카페 운영

전주대학교 입학처(주정자 처장)는 '찾아가는 수시모집 입시상담카페'를 운영한다고 6일 밝혔다.

이는 수시모집을 앞두고 고등학교 현장에 충분한 대입 전형 정보를 제공하고, 수험생과 학부모의 진로·진학 상담 기회를 제공하기 위함이다.

이번 입시상담카페는 전주, 익산, 군산 등 5곳에서 진행된다. 유동 인구가 많은 전주 객사 전주 신사거리, 전북대 일대, 익산 모현동, 군산 수송동 내 위치한 카페에서 이뤄진다.

이날 전주대에 따르면 지난 2일 전북지역에 입시상담카페를 개설 전국 각지의 110여 명의 수험생이 사전 신청했다. 입시상담카페는 오는 9일 한 차례 더 진행될 예정이다. 상담 시간은 오전 10시부터 오후 4시까지며, 학생들은 30분 단위로 상담을 신청할 수 있다. /정은성 기자

전주대 환경생명식품과학과 대학원생들 식품저장유통학회 국제학술대회 우수 성과

강민경 박사과정 '최우수' · 이수정 석사과정 '우수상'

전주대학교 환경생명식품과학과 대학원생들이 최근 열린 제44회 한국식품저장유통학회 정기 국제학술대회에서 우수한 성과를 거뒀다고 6일 밝혔다.



강민경



이수정

이수정 학생은 "국내 최초의 품광이 스타터 발효로 인해 정통 한국식 발효 소시지 제조가 가능해지면 향후 상용화에도 기대

이에 따르면 환경생명식품과학과 박사과정 강민경 대학원생과, 석사과정 이수정 대학원생이 연구내용 구두발표에서 각각 최우수상과 우수상을 받았다.

먼저 강민경(박사과정·지도교수 오상남) 대학원생은 '소 초유에서 분리한 나노사이즈 입자인 엑소좀의 근간소중에 대한 완화 효능'을 주제로 한 연구 논문을 발표해 최우수상을 받았다.

강민경 학생은 "생물학적 신소재인 우유 유래 엑소좀이 근력 개선에 도움이 되는 건강기능 소재로 가능성을 시사했다는 데 뜻깊고, 이를 바탕으로 한국의 우수한 식품소재의 기능성 연구에 더욱 매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이수정(석사과정·지도교수 오상남) 대학원생은 '발효건조소시지 제조 스타터의 국산화를 위한 페니실리움 날지오벤스 SI02의 분리 및 특성 규명' 주제로 우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정은성 기자

된다"며 "국산 발효육 산업의 활성화를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소감을 전했다.

한편 이들을 지도한 오상남 교수는 "대학원생들의 노력이 이러한 성과로 확인돼 매우 기쁘다"며 "특히 서해안 선도리 갯벌에서 발굴한 페니실리움날지오벤스 품종이 균주의 분리 및 한국산 살라미제조 가능성연구가 매우 의미가 크다"고 말했다.

이어 "나고야의정서에 대응해 수입에 의존해 온 발효식품의 스타터 미생물을 국산화하고, 나아가 산업화로 이어질 수 있도록 가치를 창출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나고야의정서란 유전자원의 접근 및 이익공유에 관한 것으로, 어느 국가가 보유한 생물자원을 이용해 이익이 발생했을 때, 생물자원 원산국과 이용국이 그 이익을 공정하게 나누어야 한다는 내용의 국제적 약속이다. /정은성 기자

전북 푸드테크 이끌 융합형 인재 집중 양성

전주대 푸드테크 계약학과

20명 모집 정원 모두 충족

전주대학교(총장 박진배)는 2023년 푸드테크 계약학과(모체학과 외식산업조리학과)를 통해 지역 중심의 푸드테크 융합인재 양성에 집중하기로 했다.

이에 따르면 이번 푸드테크 계약학과에는 농업회사, 식품 제조·가공 업체, 외식업체, 교육 및 컨설팅 업체 등 다양한 전문 기업의 종사자들이 지원, 20명 모집 정원을 모두 충족했다.

특히 외식조리, 생산 및 식품 자동화 등 F&B 업계에서 필요한 맞춤형 전문인재 양성을 목표로 하고 있다.

푸드테크 계약학과는 푸드테크 개발 전공과 운영 전공으로 구성해 외식산업 인력난 해결을 위한 융합형 인재육성한다는 계획이다.

총괄책임자인 전효진 교수는 "전북이 푸드테크 산업의 메카로 도내 식품



및 외식 산업체의 전문성을 강화하겠다"고 전했다.

한편 푸드테크 계약학과는 식품 및 외식 관련 산업체와 대학이 상호 협약을 맺고 산업체가 필요로 하는 전문인력을 양성하는 제도로, 기능성식품, 푸드테크 등 미래 유망식품시장 성장 및 식품산업 트렌드 변화에 발 빠르게 대응할 수 있는 인재 양성을 위해 추진됐다. /정은성 기자

군산대 통학버스 내년부터 전면 무료

올해 16대에서 28대로 증차

학생복지 차원에서 '두각'

국립군산대학교가 학생복지 차원에서 두각을 나타내고 있다.

국립군산대학교는 수요자 중심의 행정 운영으로 학생들의 등·하교 편의를 위하여 2023학년도 통학버스를 대폭 증차 운영을 시작하며 이어 2024학년도부터는 전체 학생을 대상으로 통학버스 무료 운영을 시행한다.

2023학년도에는 통학버스 운행대수를 종전 16대에서 28대로 대폭 증차하여 운행하며 동시에 버스당 운행 승강장을 간소화하여 학교와의 접근성을 개선하였으며, 신입생의 경우 통학버스 무료 운영을 시행해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었다.

또한 2024학년도부터는 군산대학교 전체 학생 대상으로 통학버스 이용을 전면 무료화 예정으로 학생들은 학교

외의 이동이 더욱 편리하며, 교내 활동 및 학업에 더욱 집중할 수 있게 될 것이다.

이외에도 통학버스 이용 편의를 위해 시스템을 구축하여 예약 서비스를 운영 중이다. 군산대학교 앱으로 운행 일자와 운행지역을 선택 후 조회를 통해 좌석을 선택하고 예약할 수 있으며, 통학버스의 예약신청은 출발시간 1시간까지 가능하며, 선착순 예약제로 운영된다. 또한 QR코드를 이용해 승차차를 간편하게 했다.

국립군산대학교 이장호 총장은 "우리 학생들을 위해 내년부터는 모든 학생이 무료로 통학버스를 타고 다닐 수 있다"고 말하며 "학생들의 교육환경을 개선하고 수요자 중심의 교육환경을 제공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이며, 학생들의 편의를 최우선으로 생각하며 더 나은 서비스 제공을 위해 노력을 지속할 것"이라고 말했다. /군산=김판근기자